

치 사

오늘 모인 우리 사부대중은 한국불교사에 기록될 ‘상월선원 천막결사 봉불식’에 참여하여, 한국불교 중흥을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는 아홉 선지식의 작지만 큰 발걸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본분사에 맞는 불퇴전의 용맹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의 청정성을 회복하고 수행가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책임 있는 승가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현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자가 수행자답지 못하고, 교단이 교단답지 못하다는 세간의 일부 의문에 대하여 부처님을 따라 출가자의 본분사를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왔습니다. 출가대중이 출가 초발심을 망각하고 실천에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천막결사는 우리 불교계와 사회에 던지는 큰 울림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며 설하신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청규를 만들어 오로지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스님들의 발원에 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계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주춧했던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1947년 봉암사에서 일으킨 수행 결사를 기억합니다. 수행자를 수행자답게 하기 위하여 한국불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결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난국을 극복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탈종교 시대의 불교 위기를 새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을 위례 천막불사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종단은 지금 백만원력 결집을 통해 미래 불교 대계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단에서 추진 중인 백만원력 결집 불사의 큰 목표와 위례 천막결사는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한다는 점에서 결코 다름이 없습니다.

위례신도시 부지는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종단적으로 마련한 소중한 성소(聖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례 천막결사가 단순한 수행 결사로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금강산 신계사에 부처님오신날 임시 연등을 설치하고 교류했던 그 원력이 신계사 복원이란 큰 성과를 이루었고, 남과 북의 불교 교류의 상징이 되었듯이, 위례 천막결사는 종단의 포교도량 건립으로 회향되어 신도시 포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수행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불교의 중흥을 발원한 아홉 선지식의 원력이 부디 신뢰받는 청정 승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여 불교계 전체의 발전으로 회향되길 진심으로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그리고 천막결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행의 열기가 추운 겨울에도 법체를 지켜낼 굳건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동안거 해제일을 맞이하여 아홉 선지식께서 사부대중에게 깨달음과 미래의 한국불교 중흥을 논의하는 법석에서 다시 만나 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불기 2563년 11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